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4 Issue | Vol. 4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6월 인플레이션 목표치 내 예상
— page 1-3
- 새로운 국제공향이 불라칸
생태경제특구를 변창하게 할 것
— page 3
- 임금위원회, NCR에서 P35 최저임금
인상 승인 — page 4
- 공장 활동이 세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다 — page 5
- 필리핀의 경쟁력, 인프라 업그레이드
속도에 달려있을 것 — 싱크 탱크
— page 5 -6
- 필리핀과 아시아 네 나라, 결제 시스템
연결 계획 — page 6 -7
- OECD: 필리핀, 지역 동료국들보다 세금
수입 효율을 높이며 2022년 세금 수입 증가
— page 7

6월 인플레이션 목표치 내 예상

July 01,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HEADLINE 인플레이션은 6월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중앙은행의 2-4% 목표치 내에서 일곱 번째 연속 달성했다고 분석가들이 말했습니다.

BusinessWorld가 14명의 분석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대한 중앙값 추정치는 3.9%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예측한 3.4-4.2%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6월 인플레이션은 4월의 3.9%와 일치할 것입니다. 또한 1년 전 같은 달의 5.4%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7월 5일 금요일에 6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경제학자 사라 탄은 이메일에서 "6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3.9%로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몇 달간 급등했던 쌀 가격이 건기 절정을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곡물인 쌀은 국가 인플레이션에 큰 기여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5월 쌀 인플레이션은 23.9%에서 23%로 완화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두 달 연속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입니다.



A vendor waits for customers in a public market in Quezon City. — REUTERS

물가상승률이 6월에 3.9%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평균 2.6%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주로 수입 쌀에 대한 관세 인하의 영향 때문입니다,"라고 필리핀 국립은행 경제학자 엘빈 조셉 A. 아로고가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쌀 가격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 제62호에 따라 35%에서 15%로 쌀 수입 관세를 인하한 이후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HSBC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이메일에서 "6월에는 전기 요금도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전기 요금은 5월에 도매 전력 구매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했던 수급 분할 명령에 따라 전기 요금이 연간 약 17%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가격 조정과 대조됩니다. 이는 물가상승 전망에 큰 하락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닐라 전력 회사가 제공하는 주거 고객들은 6월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P1.9623 감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5월의 kWh당 P11.4139에서 6월의 kWh당 P9.4516으로 전체 요금을 낮추었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상방 위험도 언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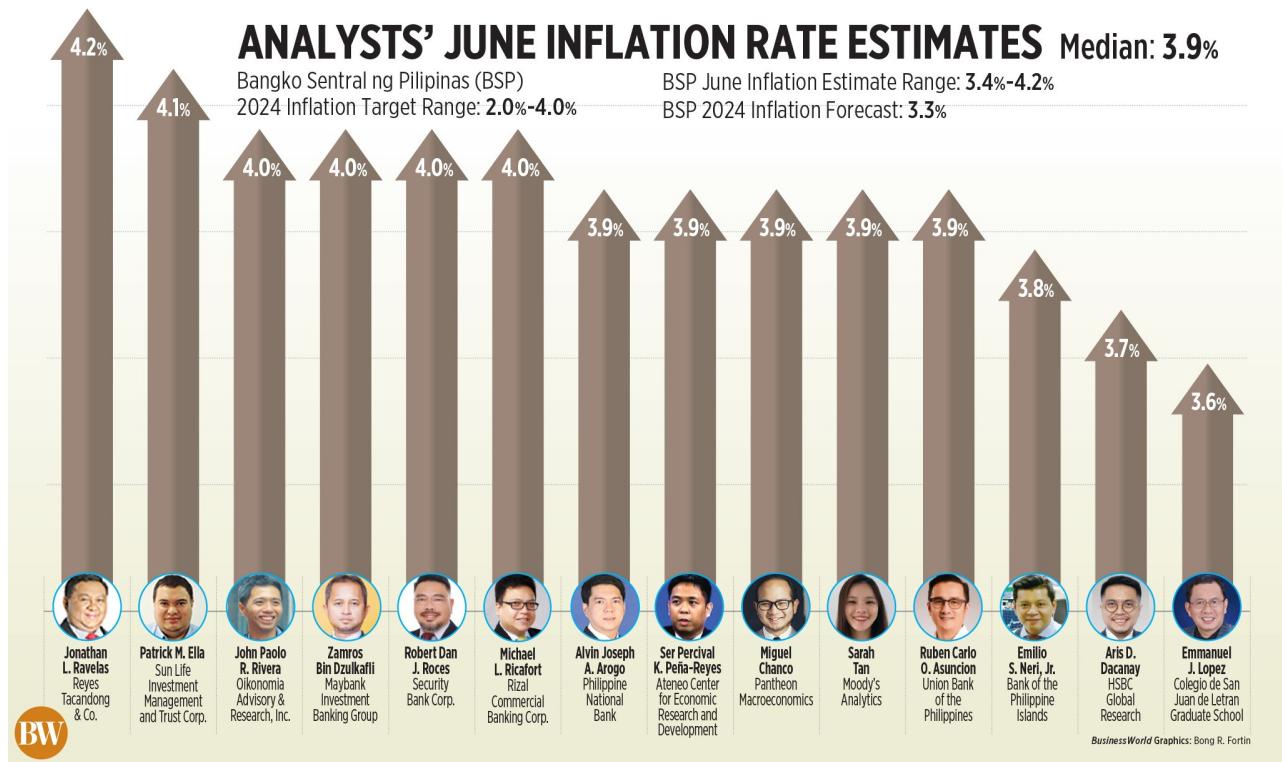
"6월의 가격 상승 압력은 쌀 외의 다른 농산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잎채소인 배추와 생강은 당국에 의해 6월 상반기 평균 소매 가격이 5월에 비해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라고 탄 씨는 말했습니다.

다카나이 씨도 칼라만시, 논양배추, 가지와 같은 과일과 채소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언급했습니다.

"계속되는 페소 약세와 높은 식품 인플레이션은 추가 물가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라고 메이뱅크 투자은행 그룹의 경제학자인 잠로스 빈 둘카플리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Cont. page 2]

6월 인플레이션 목표치 내 예상

[Cont. from page 1]



페소는 5월 말의 P58.51에서 6월 말의 P58.61로 10센타보 하락했습니다.

이달 동안 가장 약세를 보인 날은 6월 26일로, 달러당 P58.86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20개월 만에 최악의 마감 기록이었습니다.

정책 영향

필리핀 제1은행 경제학자 엠마뉴엘 S. 네리 주니어는 인플레이션이 다음 몇 달 동안 목표에 근접하게 유지된다면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과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모두 4% 이하에 유지된다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하든 하지 않든 8월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지난 주 중앙은행이 8월 15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은행 경제학자 로버트 단 J. 로세스는 인플레이션이 7월과 8월에는 여전히 높지만, 9월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 범위 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SP는 7월에 인플레이션이 2-4%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후 목표 범위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잘 상업은행 경제학자 마이클 L. 리카포트는 Viber 메시지에서 6월부터 7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4% 수준을 넘을 수 있지만, 8월부터 12월 사이에 목표 범위 내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데이터가 목표 범위 내에 유지된다면, 필리핀 중앙은행은 다음 회의(8월)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를 시작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이 올해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antheon Macroeconomics의 주요 신흥 아시아 경제학자 미게르 찬코는 말했습니다.

탄 씨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더욱 완화되기를 기다리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3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BSP가 통화 정책 완화를 준비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Cont. page 3]

6월 인플레이션 목표치 내 예상

[Cont. from page 2]

지난 주의 정책 회의에서 BSP는 개선된 인플레이션 전망이 "덜 제한적인" 정책 입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SP는 외부 조건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속도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5월과 맞거나 감소한다면, 이는 BSP에게 정책 완화 사이클을 빨리 시작할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탄 씨는 덧붙였습니다.

반면, 필리핀 유니온은행의 주요 경제학자 루벤 카를로 O. 아순시온은 BSP가 정책 완화를 제 4분기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세인 페소와 최근의 원유 가격 상승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제 4분기까지 BSP가 금리 인하를 연기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아순시온 씨는 또한 “BSP는 지금 당장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약세인 페소와 높은 원유 가격의 비용 압력 증가를 완화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해 후반에 더 빠른 2차 가격 효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레물로나 씨는 BSP가 “가끔씩” 페소에 개입하여 급격한 약세를 막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 금리 인하를 내년 초까지 연기할 경우, BSP는 이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BSP의 고금리 정책의 부산물인 지역곡선 상 고조된 실질 금리가 내년까지 생산과 투자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순시온 씨는 덧붙였습니다.

개발예산 조정위원회는 올해 페소가 P56에서 P58 사이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01/605186/june-inflation-likely-within-target/](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7/01/605186/june-inflation-likely-within-target/)

새로운 국제공항이 불라칸 생태경제특구를 번창하게 할 것

July 01, 2024 | Butch Fernandez | BusinessMirror



별라칸 생태경제특구를 창설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통과를 지지한 의원들은 불라칸 타운 뉴 마닐라 국제공항의 신속한 개발이 자유무역구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법 11999호 또는 별라칸 특별경제자유구역법은 해당 지역으로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특별 혜택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별라칸 생태경제특구의 설립의 중심에는 국가가 심각하게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공항 건설이 있습니다,”라고 세네이트 그레이스 포에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공항은 일자리, 비즈니스, 더 나은 여행 경험 및 지역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개방할 것입니다,”라고 포에는 덧붙였습니다.

불라칸 타운의 국제공항은 2027년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국 법 11999호는 불라칸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구 관리기관인 불라칸 생태경제구역 및 자유무역구 관리기관(Beza)을 설립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기획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Beza는 생태경제구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 기관은 20억 페소의 자본주식을 가지게 되며, 이 중 대부분의 주식은 국가 및 지방 정부가 구독하고 지불할 것입니다.

세네이트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포에는 국회가 불라칸 생태경제구역을 위한 정부 자금이 분배될 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발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사적 투자자는 7350억 페소어치의 공항을 건설할 것입니다. 정부는 생태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포에는 생태경제구역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공항 네트워크에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오래 기다리고 있던 일입니다,” 포에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01/new-intl-airport-to-make-bulacan-ecozone-thrive/](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01/new-intl-airport-to-make-bulacan-ecozone-thrive/)

임금위원회, NCR에서 P35 최저임금 인상 승인

July 01, 2024 | Ian Laqui |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수도권 지역 삼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RTWPB)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35페소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월요일에 발표되었으며, 신문에 일반적으로 공표된 후 15일 뒤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비농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645페소로 인상됩니다.

반면, 농업, 서비스 또는 소매업에서 15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와 정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은 608페소가 됩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금 인상이 임금 합리화법(공화국법 제6727호)에 따른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필수품과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청한 노동 단체의 세 가지 청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임금 명령은 NCR의 약 988,243명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받는 약 170만 명의 정규 임금 및 급여 근로자들도 임금 왜곡의 수정으로 인해 기업 차원에서의 임금 인상으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DOLE의 보도자료는 전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승인한 위원회는 정부, 경영, 노동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DOLE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4년 5월 23일과 6월 4일에 진행된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두 차례의 협의와 2024년 6월 20일 퀘존시티에서의 공청회,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마닐라에서의 임금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NCR에서의 가장 최근 최저임금 인상은 2023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으며, 비농업 부문의 최저임금은 610페소, 농업 부문은 573페소로 인상되었습니다.

동전보다 못하다

일부 진보적인 노동 단체들은 최근의 임금 인상에 대해 규탄하며, 이번 인상은 일반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한 하원의회를 통해 전국적인 임금 인상을 입법화하도록 촉구하는 대신 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을 인상하려는 마르코스 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의 취임 2주년 기념으로 노동자들에게 준 선물은 큰 모욕입니다. 임금 인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임금 검토를 요청했지만, 35페소만 주다니? 이는 쌀 1킬로를 사기에도 부족합니다!"라고 노동 단체인 Kilusang Mayo Uno의 사무총장 제롬 아도니스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동전보다 못한 것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그의 이미지 개선 시도에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NCR의 임금 인상은 작년보다 5페소 적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편, 별도의 성명에서 가브리엘라 여성당은 이번 임금 인상이 필리핀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금액이 "필리핀 가족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35페소 인상은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모욕입니다. 이는 1989년에 시행된 25페소 임금 인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작년에 승인된 40페소 인상보다도 적습니다. 정부는 NCR 노동자들이 하루에 645페소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가족 생활 임금이 1,200페소에 달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라고 가브리엘라 여성당의 아를렌 브로사스 의원이 성명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빈곤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인상을 승인함으로써,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를 무시하며, 그들을 단지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Multi-sectoral groups stage a protest rally against Charter change outside the Batasang Pambansa in Quezon City on March 20, 2024.

STAR / Ryan Baldemor

Source: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4/07/01/2366917/wage-board-oks-p35-minimum-wage-hike-ncr>

공장 활동이 세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다

July 01, 2024 | Xander Dave Ceballos | Manila Bulletin



지역 공장 활동이 6월에 더욱 둔화되었습니다. S&P 글로벌은 공장 주문의 소폭 상승과 연이은 두 번째 취업 감소로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의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구매관리지수(PMI)는 5월의 51.9에서 6월에 51.3으로 세 달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은 이 하락세가 여러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기저 수요 트렌드의 둔화로, 이는 현재 10개월 연속 성장 추이 중 두 번째로 약한 것입니다.

또한 외국 고객의 수요가 둔화되어 수출 매출이 세 달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생산 비용의 신규 상승에도 불구하고 입력 가격 인플레이션이 이전 몇 달보다 약한 상태를 유지하여, 6월에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고 구매 활동을 증가시켰습니다.

S&P 글로벌 시장 정보 경제학자 메리암 발루치는 최근 수요 조건의 냉감이 연내 하반기 생산의 더 약한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루치는 생산 활동이 구매 활동 증가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 비용의 새로운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조절되었습니다. 비교적 부드럽고 점진적인 비용 상승이 이후 몇 달간 섹터의 수요 증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S&P 글로벌은 2024년 상반기 제조업 부문에서 운영 조건이 더 개선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차년도 생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개선된 수요 조건이 추가적인 생산 확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루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기쁨의 수준은 5월의 최근 최고치보다 어두웠으며, 시리즈 평균보다 약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7/1/factory-activity-slows-to-lowest-level-in-three-months>

필리핀의 경쟁력, 인프라 업그레이드 속도에 달려있을 것 — 싱크 탱크

July 01,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이 투자 유치율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물리적 인프라 개선이 필수라는 아시아경영대학원대학교(AIM) 경쟁력 정책 센터의 주장이다.

AIM 리잘도 S. 나바로 경쟁력 정책 센터의 실행 이사 자밀 파울로 S. 프란시스코는 BusinessWorld에게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연간 세계 경쟁력 순위와 같은 지표에서 물리적 인프라 품질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권고를 요청하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 인프라입니다. 물리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인적 인프라도 포함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진행시켜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4년 세계 경쟁력 순위(WCR)를 인용하여, 그는 인프라를 기본적, 인적, 과학적, 사회적 네 가지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필리핀은 67개 경제국가 중 52위에 올랐으며,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순위 구성 요소 측면에서는 국가가 인프라 부문에서 61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의 58위보다 하락했습니다.

“10년이나 15년 전에 이미 인프라 기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의 긴 목록이 있었습니다,”라고 프란시스코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Cont. page 6]



THE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mpus in Makati City. — JUN ACULLADOR/FLICKR/CC BY-ND 2.0

필리핀의 경쟁력, 인프라 업그레이드 속도에 달려있을 것 — 싱크 탱크

[Cont. from page 5]

그는 필리핀이 이전에는 도로와 다리와 같은 기본 인프라 문제를 다뤘지만, 이제는 전자상거래를 용이하게 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족해야 할 목록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긴 목록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2024년 세계 경쟁력 순위(WCR)에서 필리핀은 기본 인프라 부문에서 62위,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55위,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60위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표에서 우리의 위치가 낮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국가를 선택할 때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예로 들어, 그는 이것이 기술 인프라 기둥의 구성 요소임을 언급하며, 필리핀은 이 부문에서 58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필리핀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프란시스코 씨는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 필요성을 보다 선진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하는 국가에 이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부문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낮다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인프라 개선 외에도 그는 필리핀이 "적절한 메시징"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 순위가 부분적으로 인식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며, 투자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나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과 인식에 따라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에서 이것을 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더 나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개혁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전달하고, 우리가 한 약속과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7/01/605444/phl-competitiveness-to-depend-on-pace-of-infra-upgrades-think-tank/>

필리핀과 아시아 네 나라, 결제 시스템 연결 계획

July 02,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From left: Bank of Thailand Governor Governor Sethaput Suthiwartnarueput, Bangko Sentral ng Pilipinas Governor Eli M. Remolona Jr., Reserve Bank of India Governor Shri Shaktikanta Da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General Manager Agustín Carstens, Bank Negara Malaysia Governor Datuk Abdul Rasheed Ghaffour and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naging Director Chia Der Juiun pose during signing ceremony and launch of Project Nexus' phase four in Basel, Switzerland, on June 30, 2024. Photo from the BSP website.

아시아 5개 중앙은행, 필리핀 중앙은행(BSP)을 포함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주도하에 국경을 넘어선 소매결제 플랫폼의 실행을 준비 중입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으로 불리는 BIS는 '프로젝트 넥서스'를 통해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즉시결제 시스템(IPS)을 연결하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BSP, 인도 예비은행(RBI), 싱가포르 통화국(MAS), 태국 은행(BOT),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창립 회원이 되며, 인도네시아 은행은 특별 관찰자로 남습니다.

"BIS 총괄 매니저 아구스틴 카스텐스는 "첫 번째 연결국으로도 넥서스는 전 세계 17억 인구의 시장을 연결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쉽고 저렴하게 서로 즉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IS, BSP, RBI, MAS, BOT 및 BNM은 '프로젝트 넥서스'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상세 계획을 완료했으며, 준비된 참가자들이 다음 단계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일요일에 시작된 제4 단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의 중앙은행들이 제3 단계에서 함께 작업한 인도 중앙은행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의 즉시결제 시스템(IPS)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Cont. page 7]

필리핀과 아시아 네 나라, 결제 시스템 연결 계획

[Cont. from page 6]

파트너 중앙은행들과 IPS 운영자들은 또한 넥서스 체계 기관(NSO)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SO는 전체 체계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NSO는 참여국의 중앙은행 및/또는 IPS에 의해 완전 소유될 것이며, 구체적인 국내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말했습니다.

BIS는 NSO를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BIS는 제3 단계의 청사진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참여국들이 넥서스의 실제 실행에 대비하면서 기술적 조언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저는 넥서스 프로젝트가 개념에서 현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모든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즉시 결제 공급자들과 함께 실제 단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BIS 혁신 허브 프로젝트입니다," 카스텐스 총괄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이 구현이 완료되면, G20 국경을 넘는 결제 프로그램과 기술 공간에서 중앙은행을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재화 개발의 미션과 일치하여 국경을 넘는 결제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는 중앙은행이 필리핀 결제 산업, BIS 및 다른 관심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경을 넘는 결제 시스템의 실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넥서스가 해외 필리핀인들에게 고품질이고 빠르며 싼 금융 수단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7/02/business/top-business/ph-four-asian-countries-to-link-payments-systems/1954531](https://www.manilatimes.net/2024/07/02/business/top-business/ph-four-asian-countries-to-link-payments-systems/1954531)

OECD: 필리핀, 지역 동료국들보다 세금 수입 효율을 높이며 2022년 세금 수입 증가

July 02, 2024 | By Manila Bulletin

필리핀은 2022년에 경제의 일부로서 세금 수입을 증가시켰으나, 지역 평균보다 세금 징수 효율이 낮았습니다.

MANILA BULLETIN

2024년 아시아 및 태평양의 세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리핀의 세금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2021년의 18.1%에서 2022년에는 18.4%로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금 대 GDP 비율은 세금 및 관세 당국이 수익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공공재 및 서비스에 지출할 재정 자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필리핀은 엄격한 팬데믹 제한을 해제하면서 두 해 전부터 경제를 재개하면서 세금 노력이 개선되었지만, 6월 2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율은 아시아-태평양 평균치인 19.3%보다 낮았습니다.

OECD에 속하는 부자 국가들 중에서는 필리핀의 2022년 세금 대 GDP 비율이 평균 34%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필리핀 정부의 세금 징수 효율 개선을 지적하며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필리핀의 세금 대 GDP 비율이 15.6%에서 18.4%로 2.8% 포인트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의 세금 노력은 또한 적어도 2007년 이래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주로 소비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OECD는 2022년 정부가 징수한 세금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이 상품 및 서비스 세금과 12% 부가가치세(VAT)에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이는 총 세금의 25.3%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은 필리핀 세금 징수의 18.4%를 차지했으며, 개인 소득세는 17%, 법인 세금은 15%, 사회 보장 납부는 15%, 기타 세금은 9%였습니다.

필리핀의 세금 구조나 각 세금의 세금 수입 비율은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발 중 국가들에서는 필리핀과 달리 법인 소득세 수입이 개인 소득세 수입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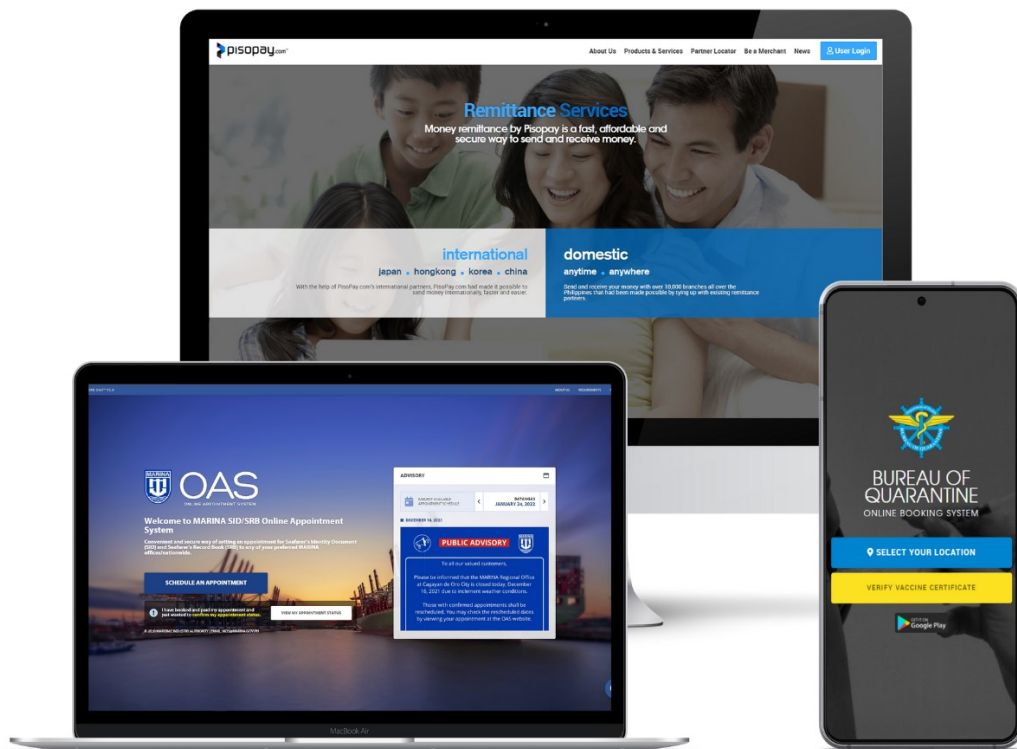
재정 장관 Ralph G. Recto는 주로 국세청과 세관국의 세금 및 비세금 수입 징수를 감독하며, 의회에서 아직 진행 중인 세금 개혁 조치 외에 새로운 세금 부과를 자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7/1/oecd-philippines-hikes-tax-to-gdp-in-2022-even-as-regional-peers-collect-more-efficiently](https://mb.com.ph/2024/7/1/oecd-philippines-hikes-tax-to-gdp-in-2022-even-as-regional-peers-collect-more-efficiently)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